



연합뉴스 노조, 3주 총력 투쟁 전개

연합뉴스 노조는 사측의 업무복귀 명령에 3주 총력 투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사측과 대화를 유지하면서 유연한 태도로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지난 6일 내려진 사측의 업무복귀 명령은 그간 진행되고 있는 노사간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였다. 노조는 공식적인 대화가 개시되자 박정찬 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잠정 보류하고, 불공정특보를 비롯해 사측 비판 기사를 내는 것도 잠시 멈췄다. 사측과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노조는 특히 파업 중임에도 4·11 총선에 대비해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일부 취재인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반대 의견이 많았음에도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 4년간 국민을 대표하는 일꾼을 뽑는 총선이 핵안보정상 회의와 그 성격과 의미가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사측은 사태 해결을 위한 노조의 유연한 입장에도 업무복귀 명령이란 강수를 뒀다. 노조가 복귀 명령이 나오면 총선 취재를 백지화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이같이 강행했다.

업무복귀 명령은 대화 상대방으로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는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업무복귀를 종용하고, 사측을 옹호하는 보직 간부들의 성명을 촉구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측의 태도를 봤을 때 더욱 그렇다.

노조는 이에 총선과 관련해 정의대 책임위원회의 별도 지침 없이 어떤 취재나 지원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총파원지침 5호를 내렸다.

노조는 다음달이 되기 전 이번 파업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를 짓고자 오늘부터 '3주 총력 투쟁'을 하기로 했다. 그 목적으로 이날 오후 2시 한빛공원에서 국내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집결 집회를 열었다.

또 총파원 지침에서 밝혔듯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파업 대외 합류를 촉구하며 투쟁의 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사측이 대화와 징계라는 당근과 채찍으로 노조를 분열·압박하는 태도에도 노조는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음을 재천명한다. 단, 대화는 사장의 제안이 최종안이라며 노조가 일방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신임투표를 둘러싼 투표 시기와 방법 등에서 노조는 탄력적인 자세로 협상할 수 있다.

노조는 아울러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 분야별 소위'를 가동한다. 공정보도시스템, 사내 민주화 및 인사 시스템, 근로여건 및 콘텐츠 경쟁력, 지역 문제, 차별해소 등 5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다.

노조는 박 사장의 제안과 상관없이 분야별 소위를 운영해 연구작업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노조는 아울러 인포맥스 사우들의 성명을 지지한다.

인포맥스 사우들은 객관적인 자격을 갖춘 경영진 선임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연합뉴스의 불공정보도의 책임이 있는 임원이 인포맥스 경영진으로 간다는 소식에 인포맥스 사우들이 연합뉴스에서 분사한 지 12년만에 처음으로 사원 총회를 열고 쫓겨간 것이다. 이번 결의문엔 인포맥스 사우 91명이 연서해 임원과 인턴을 제외한 전 사원이 참여한 셈이다.

연합뉴스 노조는 인포맥스 사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이들이 제안한 양사 사원 대표협의체 구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인포맥스 구성원들이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는 데 필수적인 노동조합을 하루 빨리 설립할 수 있길 바라며 최대한 도움을 줄 방침이다.



연합뉴스 노조 전 조합원 집결투쟁

연합뉴스 노조는 9일 전 조합원 집결 투쟁을 벌여 사측의 업무복귀 명령을 규탄했다.

총파업 26일째인 이날 오후 2시께 본사 앞 한빛공원에서 열린 집회에 본사와 지방 등 국내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해 투쟁의지를 재확인했다.

노조는 이날 규탄문에서 “한 손으로 대화를 청하면서 한 손으로 칼을 휘두르는 사측의 행동을 엄중히 규탄한다”며 “또다시 업무복귀 명령과 같은 뒤통수를 치는 격의 대응을 보일 경우 출근저지 투쟁의 재개를 포함해 한층 강도 높은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 “사측은 노사간 대화가 시작되고 대화 추이에 안팎의 관심이 쏠려 있는 마당에 대화 태도의 진정성을 철저히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병설 노조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사측이 파업 대오를 일부나마 깨 보겠다는 생각으로 주말을 앞둔 취약시간대에 업무복귀명령을 내렸지만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며 “사측이 자신들의 시도가 얼마나 하찮고 얇은 수작이었는지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우리의 1차 목표 일정을 3주로 잡겠다”며 ‘3주 총력투쟁’을 제안하면서 “파업 대오 밖에 있는 조합원을 한 명이라도 더 손 붙들고 데려와야 하며 지치고 매너리즘에 빠진 마음을 다잡는다면 3주 안에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집회에서는 앞으로 변함없이 힘차게 투쟁할 것을 다짐하는 국내외 조합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카이로 특파원으로 나가 있는 한상용 조합원은 “이곳에서 ‘아랍의 봄’이 한창 불고 있다. 이집트 국민 모두는 스스로 주인이 돼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표현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해한다”며 “우리도 이번 단결을 통해 하루빨리 ‘연합의 봄’이 왔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안승섭 조합원은 “사측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결코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더 많이 나오고 더 열심히 참여하고 협상주체로 나선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아란 조합원은 “파업한 지 한 달이 된 데다 업무복귀명령까지 내려져 초반보다 마음이 싱숭생숭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토론은 가열차게 하더라도 집행부를 많이 믿고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누리꾼들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연합뉴스 파업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올린 댓글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광빈 노조 조사부장은 “파업 가결 전에 40명에 불과했던 연합뉴스 노조 트위터 팔로워 수는 현재 4천여명까지 늘었다”며 “사측이 업무복귀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리트윗이 100~200번 되고 수십만명에게 전파되는 등 홍보효과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지금 지방취재본부는 투쟁중

경기본부, 비(非)조합원 선배 찾아 파업정당성 알려

경기취재본부 조합원 10명은 2일과 5일 지역주 재근무 중인 비(非) 조합원인 국장급 선배들을 찾아 파업의 정당성을 전함과 동시에 이번 파업에 대한 견해차로 자칫 소원해질 수 있는 동료애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합원들은 2일 오전 안양 주재 기자인 이복한 선배를 찾았다. 파업에 돌입한 뒤 첫 만남이었다.

이 선배는 “오랜만에 사건기사를 쓰는 일이 가장 큰 고충이지만 적응했다”며 조합원들의 미안함을 덜어줬다. 또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파업 행사에 참여하러 체력이 동난 조합원들을 위해 개고기를 사주며 격려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파업이 당장 끝날 것 같지 않으니 조금만 더 고생해달라”는 뜻을 전했고 이 선배는 “괜찮다. 견딜만 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다.

원기를 보충한 조합원들은 안양에서 10여분 거리에 있는 의왕시 백운호수를 찾아 시민을 상대로 국가기간통신사 바로세우기의 중요성을 알렸다.

보양식과 산책으로 심신의 피로를 달랜 조합원들은 김경태 조합원의 주재근무지인 성남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게 파업의 중요성을 선전하는 것으로 이 날 일과를 끝마쳤다.

봄비가 내리던 5일엔 수원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평택시를 찾아 이 지역 주재기자인 김종식 선배와 해후했다.

김선배는 평택의 대표음식인 간장게장을 대접하

며 후배 조합원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식사를 마친 조합원들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자 대형 커피 체인점 대신 인근 다방을 찾아 ‘다방커피’를 나눠마시며 ‘주재기자 방문의 주’를 끝마쳤다. 조합원 10명이 파업 대오를 굳게 유지하는 경기



취재본부는 오는 9일 성남 LH를 시작으로 주요 출입처를 돌며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의 정당성을 전할 예정이다.

경남본부, 푸드마켓서 봉사활동

경남취재본부는 지난 5일 오전 창원 신월동의 푸드마켓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벌였다.

푸드마켓은 주민과 기업 등이 기부한 생필품을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편의점 형태의 시설이다.

조합원들은 이곳에서 포대나 통에 수북이 쌓인 잡쌀, 간장 등을 기부물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정량으로 나누고, 각종 물건에 가격표를 붙이는 일을 도왔다.

그간 산행, 문화 투쟁 등 다양한 형태로 투쟁을 이어왔지만, 봉사활동을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업 이전에 한동안 해보지 못했던 봉사활동이라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다.

이날 봉사활동 안내를 맡은 김정미 사회복지사가 푸드마켓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김선경 조합원은



“좋은 일을 하면 복이 들어오는 것 같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취재 아이템을 얻었다”며 웃었다.

특히 김영만, 황봉규 조합원은 저울에 재보지도 않고 한번에 정확히 1kg의 찹쌀을 봉지에 담아내고서 “파업이 잘 풀릴 징조”라며 기뻐하기도 했다.

4시간여의 봉사활동이 끝난 뒤 최병길 조합원은 “빠른 통신”임을 내세우는 연합뉴스의 기자가 아닐까 봐 봉사활동도 이렇게나 빨리 척척 해낸다”며 “지금은 잠시 노트북을 접었지만, 이런 모습을 조만간 취재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점심 후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파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김영만 대의원은 카페 벽에 있던 영시의 한 구절(I am the leaf that quivers, You, the unshaken tree)을 보고 “23년 만에 첫 파업을 하는 우리의 상황을 연상케한다”며 “나무처럼 흔들리지 말자”고 말했다.

연합뉴스 구석구석 - 정보사업국

정보사업국은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를 위한 이번 파업에 신규 가입한 연봉사원 4명을 비롯해 다수 조합원이 참여해 투쟁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정보사업국의 대표적인 업무는 정부, 공공기관, 언론사, 기업, 포털 등과 뉴스 제공 계약 체결해 연합뉴스 기사가 국내외 곳곳에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다.

5개 부서, 3개 팀으로 구성된 정보사업국은 아울러 인물·사진 데이터베이스 관리, 연감 제작, 월간지 발행, 외신 관련 업무 등 다양한 일을 담당한다.

정보사업국 내 정보사업부는 연합뉴스 전체 매출액의 2/3가량을 책임지고 있다. 정부, 신문·방송사, 지자체, 재외동포언론사, 국내 주재 해외 언론사 등 약 700여곳과 뉴스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정보사업부는 이번 파업을 통해 연합뉴스가 더 나은 뉴스를 생산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뉴미디어사업부는 정부와 언론을 주로 담당하는 정보사업부와 달리 민

간시장에서 순수하게 수익사업을 하는 부서다. 네이버, 다음 등 온라인 포털과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 의료·교육 등 각종 온라인 사이트와 뉴스제공 계약을 맺고 서비스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합뉴스의 주요 상품인 뉴스리더의 영업 업무와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채널을 통한 뉴스제공도 담당한다.

뉴미디어사업부의 한 조합원은 “기업 등 출입처에서 연합 기자들의 평판이 좋아서 우리가 ‘을(乙)’의 입장이지만 떳떳하게 영업한다”며 “연합 기사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연합 기사는 빠르고 신뢰할 만하다고 직접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그는 “정보사업국은 다른 비제작 파트와 달리 연합뉴스 기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정상적인 서비스, 마케팅, 영입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기사의 질이 좋아야 언론사, 기업도 연합 기사를 잘 받아쓰고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정보사업국 내 제작부서인 월간부는 ‘이매진’이라는 월간지를 매달 25

일 전후로 발행한다. 사진기자, 글기자, 편집기자, 편집디자이너 등이 잡지를 만들고 있다.

기존 여행 전문지인 ‘르페르’에서 변모한 이매진은 여행뿐 아니라 시사, 문화 등을 두루 다루는 종합교양지를 표방하고 있다.

월간부의 한 조합원은 “우리도 제작부서인 만큼 회사의 공정보도를 위해 파업에 참여했다”며 “이번 파업을 계기로 회사 내부에서 월간지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DB부는 AP, AFP 등 외신사진과 내신사진 DB, 인물 DB를 관리하고 연합연감, 영문연감, 연합인물사전 등 출판물을 제작하는 곳이다.

DB부조합원들은 “공정보도가전제돼야 연합 콘텐츠의 가치가 높아지고 DB의 가치, 회사 브랜드의 가치도 함께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이번 파업에 참여했다”며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파업참여는 당연했다”고 말했다.

북한자료부는 북한 인물과 북한 관련 자료를 등록·관리하고 북한 연감을 제작하는 곳으로 부장과 팀원으로 단 2명인 미니부서다.

출판기획팀은 앞서 소개한 부서들

이 발행하는 연합이매진, 각종 연감, 인물사전 등을 편집, 제작하며 이런 단행본의 지방 업무팀별 판매를 관리한다.

PR기획서비스팀은 각종 출입처의 보도자료 편집·배포 서비스와 사진 전송서비스, 주관통신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다음달 개막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주관통신사를 맡는 계약을 성사시켰다.

대외업무팀은 국외 통신사들과의 교류 등 외신 관련 업무, 연합 콘텐츠의 국외 판매, 외신 구독 계약, 제1회 국제보도사진전 등 국제 행사 주최를 맡고 있다.

정보사업국의 여러 조합원들은 “회사가 정권편향적인 콘텐츠로 낙인찍히면 콘텐츠의 가치가 떨어진다”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훼손돼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공감대가 회복돼야 회사의 수입구조도 안정적이고 더 확대될 수 있다”며 “쟁대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파업이 빨리 잘 마무리되면 좋겠다”고 바랐다.